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김 수 지

2012年 2月



#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혜숙

김수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2월

김수지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년 2월

<국문초록>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김 수 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지도교수 김 혜 숙

이 연구는 제주도내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내에서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밝히고, 대학생들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향상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제주지역에 위치한 4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4월 14일~4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학생 총 500명을 대상으로 460부를 회수하고 부실하게 기재된 174부를 제외한 총 286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도구는 가족체계를 측정하기 위해 Olson(1989)등이 개발한 FACESⅢ를 전귀연(1993)이 번역,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를 현진원 번역, 김효원(200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뒤 t-test, one way-anova, Scheffe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자신의 가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원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 높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문제해결 수행 능력 등의 가족기능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조사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년, 가족구성, 가계 월소득이 주요변수로 나타났다. 즉, 22세 이상, 3학년, 남학생이, 모와 함께 살고, 가계의 월소득이 401만원 이상 일때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대학생활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간수준으로 사회적 적응, 학업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이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다른 하위 요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대인관계, 감정표현등의 개인-정서적 적응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 연구에서 조사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년, 가계 월소득이 주요변수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적 적응을 보면 성별, 연령, 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이는 22세 이상, 4학년, 남학생이 학업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은 성별, 연령, 학년, 월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2세 이상, 4학년, 남학생이, 가계 월 소득이 401만원 이상일 때 사회적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성별, 연령, 학년, 가계 월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2세 이상, 4학년, 남학생이 가계 월 소득이 401만원 이상일 때 개인-정서 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 영역이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이 잘 이루어 질수록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연구결과 가족체계 내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이 정적인 상관관계로 이는 이는 개인에게 미치는 가족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가족 안에서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대학생활의 적응을 도우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을 시사한다.

# 목 차

## I. 서론

|                       |   |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 1 |
| 2. 용어의 정의             |   |
| 1) 가족체계 -----         | 3 |
| 2) 대학생활적응 -----       | 3 |
| 3. 연구문제 -----         | 4 |

## II. 이론적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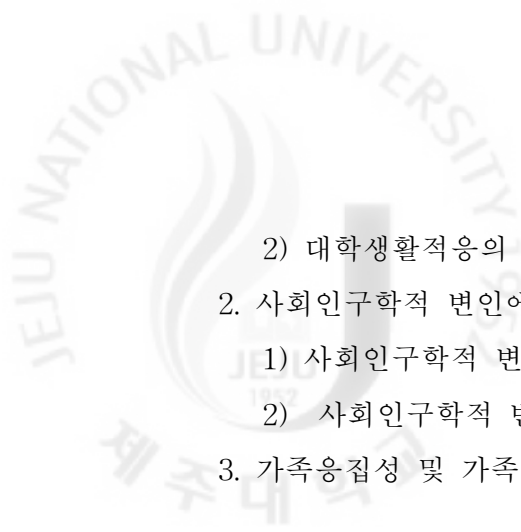
|                              |    |
|------------------------------|----|
| 1. 가족체계                      |    |
| 1) 가족체계 개념 -----             | 5  |
| 2) 가족체계 이론 -----             | 5  |
| 3) 복합순환모델 -----              | 8  |
| 2. 적응 및 대학생활적응               |    |
| 1) 적응 -----                  | 12 |
| 2) 대학생활적응과 하위요인 -----        | 13 |
| 3. 선행연구 고찰                   |    |
| 1) 가족응집성, 적응성에 대한 선행연구 ----- | 15 |
| 2)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     | 17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    |
|------------------------|----|
| 1.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절차 ----- | 19 |
| 2. 측정도구                |    |
| 1) 가족체계 -----          | 22 |
| 2) 대학생활적응 -----        | 22 |
| 3. 자료분석 방법 -----       | 24 |

## IV. 연구결과

|                                   |    |
|-----------------------------------|----|
| 1.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 |    |
| 1)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의 전반적인 경향 -----   | 25 |



|  |    |
|--|----|
| 2)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 -----               | 26 |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대학생활적응 |    |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   | 29 |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          | 31 |
| 3.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    | 33 |
| <br>                                   |    |
| <b>V. 요약 및 결론</b>                      |    |
| 1. 요약 -----                            | 34 |
| 2. 결론 및 제언 -----                       | 37 |
| <br>                                   |    |
| <b>참고문헌</b> -----                      | 39 |
| <br>                                   |    |
| <b>Abstract</b> -----                  | 44 |
| <br>                                   |    |
| <b>&lt;부록&gt;</b> -----                | 47 |

## 표 목 차

|                                   |    |
|-----------------------------------|----|
| <표-1> Olson의 Circumplex Model     | 9  |
| <표-2>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 20 |
| <표-3> 가족체계의 하위척도별 문항 및 신뢰도        | 22 |
| <표-4> 대학생활적응 하위척도별 문항 및 신뢰도       | 23 |
| <표-5> 연구대상자의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 전반적인 경향  | 25 |
| <표-6>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전반적인 경향       | 27 |
| <표-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   | 29 |
| <표-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 31 |
| <표-9>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 33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는 집단의 구성원이 된다. 가족은 인간이 성장하고 살아가는데 있어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체계로 개인의 생활태도와 가치관 역시 이러한 가족을 통하여 형성되어 간다. 즉, 가족은 인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인 동시에 사회유지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이후 Bertalanffy(1968)의 일반체계이론의 영향을 받아 가족을 하나의 기능적인 체계로 보려는 관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체계적 관점을 바탕으로 출현한 가족체계이론은 심리치료에 있어서 기존 전통적인 개인심리치료의 한계를 벗어나 가족치료적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박현진, 1999).

가족체계이론은 개인의 부적응 행동의 원인을 한 개인만의 내적인 문제로 보기보다는 역기능적인 가족관계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로 보았다. 따라서 가족체계의 응집성과 적응성 차원에서의 가족관계는 가족구성원 개인 생활상의 적응과 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대학생들의 경우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로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기능이나 가족관계의 역기능으로 인해 나타나는 적응의 문제는 대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은 청소년과 성인의 중간단계로 발달과정의 과도기에 있다. 과도기에는 혼란과 진통과 불안정이 있다. 이 시기의 특성으로는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함께 심리적인 독립, 책임, 나아가 사회와 가정의 새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한명숙, 정미혜(2000)는 대학생이 속하는 청년기는 신체적인 성장과 인지적 능력의 급속한 발달, 도덕성의 발달 등을 통하여 성인 생활을 위한 기반을 갖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해야 할 과업이 많고 가정이나 사회에서 기대되는 역할에 있어서는 부모 의존적 위치로부터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새로

운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자질과 한계를 인식하며 자신과 사회를 재평가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대학 입시라는 과제로 인해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할 발달과업을 유보한 채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생활하다가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비로써 직접적으로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겪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까지는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대학생 시기가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신지영, 2000). 대학이라는 환경에서의 적응 문제는 장래에 독립된 성인으로서 당면한 현안과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성숙된 역할을 감당하는 것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기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집을 떠난다 하더라도 여전히 경제적, 정서적 의존도가 높다. 이에 진로 문제, 대인관계문제, 가치관문제 등 대학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가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학생활의 적응과 관련하여 독립과 분리-개별화만큼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가족의 영향, 즉 가족들과의 조화와 균형이라 할 수 있다(Walters&Stinnett, 1971; Hall & Lindzey, 1978; Walters &Walters, 1979; 유정이, 1993; 한혜준, 1994).

다시 말해 고등학교까지의 수동적인 생활로 자율성이 강조되는 대학환경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대학생 시기에 미래에 대한 준비와 책임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나타나는 문제에 보다 효과적인 접근을 위해 개인 특성이나 특정 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장하고 생활하는 가족이라는 체계적 역동성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생활적응의 조사는 미비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가족체계 내에서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향상을 통한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2.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가족체계(Family System)

가족체계란 가족 내의 상호작용의 특성이 하나의 체계로서 기능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특히 Olson, Russell, Sprenkle(1979)은 복합구조모형을 통하여 가족체계에 관한 분석을 한다. 복합구조모형(Circumplex Model)은 가족체계의 특성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라는 두 차원의 상호 조합에 의해 설명한다.

#### 1-1)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 또는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와 한 개인이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를 말한다.

#### 1-2)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가족적응성은 가족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정도, 가족의 변화를 허용하는 정도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정도를 말한다.

### 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활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으며 잘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 내적인 적응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적응을 모두 포함하여 네 가지 측면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에의 만족도 측면으로 나눈다.

### 3.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대학생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대학생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가족체계

#### 1) 가족체계 개념

가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얽힌 복합적인 총체로서, 체계의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다른 부분에서의 변화를 야기한다. 즉, 가족 구성원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각 구성원들 개인은 가족체계에서의 변화를 반영한다(Watzlawick, Weakland, and Fisch 1974). 가족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에서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로서의 가족에 강조를 두고 가족체계의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기능하는지를 보는 것이다. 1960년대 이후 가족 전체가 하나의 기능적인 단위로서 작용하는 가족의 역동적 과정이 중요한 심리적 환경임을 강조하는 체계론적 연구들이 활발하게 발전되어 왔다(이정송, 2011).

#### 2) 가족체계 이론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을 하나의 체계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으로 이러한 가족체계이론은 일반체계이론(general system theory)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1940년대 독일의 Ludwin Von Bertalanffy(1968)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홍현화, 1997).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을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일대일의 특정한 관계로 설명하기 보다는 가족전체가 살아 있는 유기체로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하나의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 중 이론적 모델로서 가장 정교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Olson과 그의 동료들이 일반체계이론을 가족에 적용하여 개발한 가족체계의 순환모델(the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이다. 이 모델에서는 가족의 응집력과 적응력이 가족 의사소통의 중심개념으로 가족체계를 진단한다. 이 모델은 가족체계의 기능성 척도인 응집성과 적응성을 두 축으로 하는 그래프 상에서 가족의 기능과 관계의 역동을 나타

내기 때문에 ‘Coupled and Family Map’이라 불린다(한국가족관계학회, 2002).

가족체계이론에 의하면 가족의 기능수행은 가족성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그것은 개별적인 구성원들이 갖는 특성 그 이상의 것이다. 가족체계 내에서의 가족성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정서적 유대감, 가족 내 역할, 규칙, 힘 등의 체제아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체제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한다.

가족체계이론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심혜숙, 1995).

첫째, 가족체계 내에는 가족규칙이 있다. 가족 내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존재하며, 가족구성원은 규칙의 지배를 받는다. 또한 가족원의 반복되는 상호작용을 통해 규칙은 조직화되어 은연중에 불문율이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칙들을 알게 되면, 가족들이 어떻게 서로간의 관계를 규정짓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 이는 가족의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규칙을 찾아내어 이를 수정시킴으로서 가족구성원의 자유로운 성장을 도울 수 있다.

둘째, 체계 내에는 여러 개의 하위체계들이 있고 이들 각각은 전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가족체계 내에서 보다 지속적이고 중요한 하위체계는 부부, 부모-자녀, 형제간의 하위체계이다(Minuchin, 1974). 가족구성원은 여러 하위체계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하위체계에 소속되느냐에 따라 다른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그 상황에 따라 다른 보완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 하위체계들은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어서 하위체계와 상위체계로 구성된다.

셋째, 가족체계내에는 경계(boundary)가 존재한다. 경계는 가족 하위체계들간의 가장자리로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를 규정하는 일종의 규칙이다. 이때 가족 구성원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각자의 분화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가족체계가 올바르게 기능하려면, 하위체계간의 경계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또한 경계는 분명하면서도 다른 하위체계와 쉽게 접촉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넷째, 가족체계는 항상성(homeostasis)과 변화(morphogenesis)라는 원리에 의해 작동된다(Bloch&Laperrire, 1973). 가족체계의 항상성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도들에 의해 변화를 시도하는 체계에 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즉, 가족체계가 외부자극으로 인해 평행상태로부터 벗어나려 할 때 이를 통제하여 체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조절·회복하려는 작용이다. 이는 가족의 행동범위

를 제한하며, 어느 정도의 선을 넘지 않도록 다양한 해결책을 사용하여 제한하며 중재한다. 이렇게 항상 어느 정도 변화하면서 체계를 스스로 유지하려는 적응성과 하위체계와 외부체계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발전되는 가족체계의 역동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개념들이 사용되어 왔고 Olson등(1983)은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라는 용어를 발전시켰다. 가족구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나타내는 가족응집성과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들간의 역할이나 변화를 얼마나 융통성 있게 적응하며 생활하는지를 나타내는 가족적응성이라는 두 가지 가족기능으로 가족체계를 분류하였다.

Olson등이 제시한 가족체계는 가족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 맺는 정서적 유대와 개별적 자율성 정도를 의미하는 가족응집성과 지도력, 역할관계 및 관계 규칙에서의 변화의 양을 의미하는 가족적응성이 개인의 정서적 건강, 가족생활의 만족도, 가족 곤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들은 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균형을 이룰 때 가족체계의 기능이 보다 효과적이며 가족구성원도 최적의 발달을 꾀할 수 있고 가족 내 상호작용의 여러 측면이 건강한데 비해, 극단적인 가족체계는 역기능적이기 쉽다고 하였다. 즉, Olson의 복합순환모델에서의 주요 가설은 균형 잡힌 가족들은 극단적인 가족들보다 더욱 적절하게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양 차원 모두 극단적인 가족은 상황적이고 발달단계적인 스트레스에 더 어렵게 대응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므로 극단적인 가족에서 문제 자녀가 나올 가능성이 많으며 또한 응집성과 적응성 차원은 곡선적인 관계로 지나치게 적거나 많은 응집성과 적응성은 가족체계에 역기능적이라는 것이다(계윤정, 1990).

Minuchin(1974)은 전체로서의 가족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위체계들간의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경계가 분산되어 있어 하위체계들 간에 서로 심한 간섭이 있을 경우, 그런 가족은 얽혀 있다고 말하고, 이에 반해 경계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하위체계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족을 이탈되어 있다고 한다. 얽혀있거나 이탈된 가족체계는 특히 자녀의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므로 역기능적이라 하였다(정경숙,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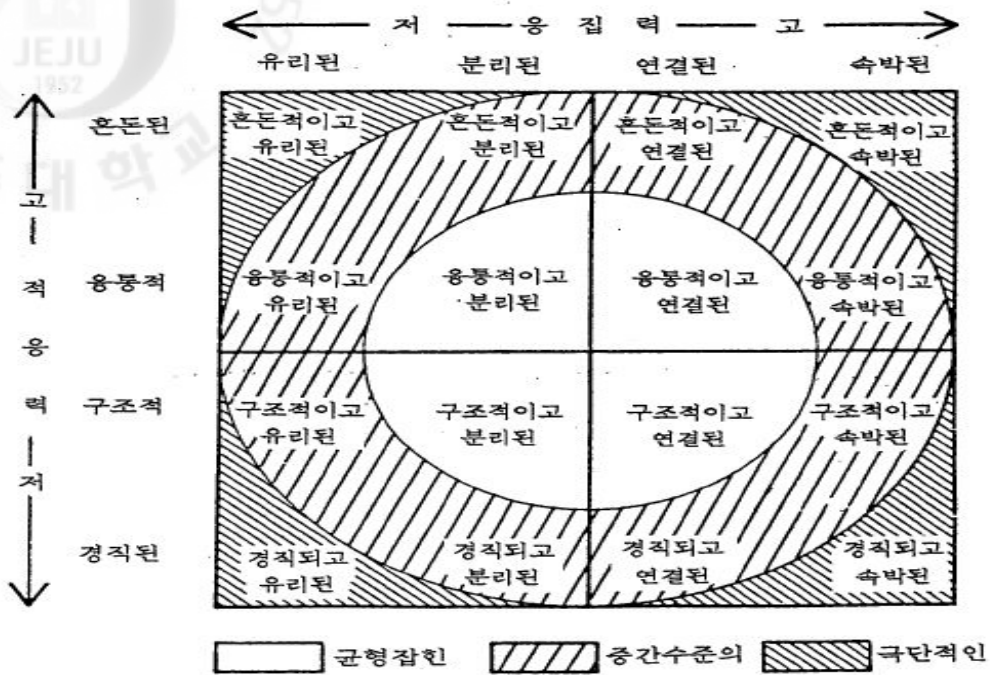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가족을 진단하기 위한 Olson등의 복합순환모델을 사용하였고 이는 다른 모델과 달리 가족체계를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 3) 복합순환모델(Circumplex Model)

복합순환모델은 가족이 어떻게 기능하는가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모델로 가족 체계이론에 기초하여 응집성과 적응성이라는 차원을 통해 설명하는 모델이다(Olson et al, 1989, 이천숙, 1996). 복합순환모델에서의 응집성과 적응성은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위해 발전시킨 차원으로서 기존의 가족체계에 대한 개념들을 모아 새로이 구성한 것이다. 이 모델은 응집력 차원의 수준에 따라 4가지, 적응력 차원의 수준에 따라 4가지의 유형이 나누어 지고 이것을 조합하면 총 16가지 가족체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이 16가지 유형은 그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조화된 가족은 가족응집력과 적응력 차원이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으로 <표-1>에서 중간의 작은 원 안에 속하는 4가지 가족 유형을 일컫는다(신영균, 1994).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모두 균형을 이룬 가족이면 균형 잡힌 가족, 한 가지 차원이 균형을 이룬 가족이면 중간 수준의 가족, 두 가지 차원 모두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족이면 극단적 가족이라 하여 3종류의 가족체계유형을 설정하였다. <표-1>에서 두 번째 원(큰원)에 속하면서 작은 원에는 속하지 않는 8가지 가족유형이 포함된다. 극단적인 가족은 응집력과 적응력 두가지 차원 모두가 극단적인 수준으로 4각형의 양 모서리를 이루고 있는 4가지 유형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모델에서는 한가족이 응집력, 적응력 두 가지 차원에서 모두 균형을 이룰 때 그렇지 못할 때보다 가족체계의 기능이 더 효과적이며, 가족 구성원들도 최적으로 발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1>Olson의 Circumplex Model



출처: 신영균(1994).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 관계 : p.16

복합순환모델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포함한다(Olson, 1993; 안영숙, 1992 재인용).

첫째, 응집력과 적응력 차원에서 균형을 이룬 가족은 극단적인 가족보다 모든 가족생활주기를 거치는 동안 일반적으로 더 기능적이다. 대부분 잘 기능하는 가족은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극단 부분에 위치하지 않는다. 스트레스가 높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극단 부분에 위치할 수 있으나 너무 오랜 기간 머물게 되면 역기능을 일으키게 된다. 응집력 차원의 균형은 구성원들에게 가족에 대한 친밀함과 개별성을 제공하며 적응력 차원의 균형은 변화가 필요할 때 안정감을 유지하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균형을 이룬 가족 형태는 구성원들에게 더 넓은 행동 범위를 제공한다.

둘째,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응집력과 적응력 차원에서 균형 잡힌 형태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대로 부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은 균형 잡힌 형태의 변화를 방해하여 계속 극단적인 체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에는 일치적인 메시지, 공감, 지지, 효과적인 문제해결기술 등이 포함된다.

셋째, 가족생활주기 동안 발생하는 상황적인 스트레스와 발달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가족은 그들의 응집력과 적응력을 변화시킨다. 즉, 적절히 기능할 수 있는 위치가 가족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청소년기 자녀가 있는 가족체계는 응집력과 적응력 두 차원 모두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잘 기능할 수 있다.

Olson은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 가족응집력 및 적응력 평가 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를 개발하였다.

### 3-1) 가족응집성

가족응집성은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에 의해서 정의된 용어로 가족원간의 정서적 유대, 가족 외부환경과 하위체계들 간의 경계, 연합이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 가족의 공동 시간과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정도, 가족의 공동 공간과 개인의 사적 공간의 허용 정도, 가족의 공동 친구와 개인의 사적 친구의 인정, 의사결정의 유형, 가족활동과 개인의 활동보장 정도를 제시하였다(이은주, 2009).

이러한 가족응집성 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 가족은 소속감이 너무 커서 가족에 대한 충성심, 우의의식, 개인의 권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전체의 권리를 위하여 타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개별성을 방해하며 자율적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서 자신의 요구와 목표의 성취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다. 반면 응집성이 지나치게 낮은 가족에서는 개인주의가 보다 만연되어 있고, 개인의 이익이 우선시되므로 개인의 자율성은 커지지만 구성원간의 유대감이 너무 낮아 자신의 일만 하게 되고 가족 애착 등이 제한된다. Olson등(1983)에 의하면 가족의 응집성 수준이 적당할 때만이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고 한다. 즉, 응집성이 연결수준에 있는 가족은 독립과 연결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가족 기능이 원활하고 개인의 발전도 최적의 수준을 이루게 되며, 상황적 스트레스와 변화에 보다 융통성있게 대처하게 된다(이원옥, 2003). 이러한 응집력 수준을 연속선 상에서 볼 때 가장 낮은 수준부터 높은 수준의 순서로 1. 유리된 가족, 2. 분리된 가족, 3. 연결된 가족, 4. 속박된 가족의 4가지로 구분된다. 결국 이런 응집력이 중간 수준일 때 즉, 균형잡혔을 때 개인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적절히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연관을 가지는 균형을 이룰 수 있다(Olson et al, 1979, 1983).

### 3-2) 가족적응성

가족적응성의 개념은 내적·외적 요구나 목표에 맞추어 역할, 규칙, 전략을 바꾸려는 가족의 능력이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Olson등(1979, 1983)은 가족적응성을 가족구성원들이 상황적 과정과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그 자체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그리고 관계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내리고 있다(김효원, 2005). 가족적응성은 가족체계의 유연성이나 변화 가능성을 측정해야 하므로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통제 유형과 훈육방식 혹은 가족규칙의 융통성을 측정기준으로 한다.

이러한 가족적응성 수준이 극단적으로 높은 경우 가족체계에 변화가 생겨 가족 내의 규칙, 역할, 힘의 구조 등이 혼란스럽게 조직되고 지도력 유형이 불분명해지면 서 문제해결력이 부족해지는 역할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규칙이 쉽게 변하고 수동적이고 공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반면 적응성 수준이 너무 낮은 경우 가족체계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고, 기존의 권위적이고 전통적인 지도력과 반복적인 역할, 고정적인 규칙들이 나타난다(안경숙, 2006). 이처럼 적응성도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문제를 가진 역기능적인 가족이 되는 반면 적응성 수준이 적절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상호 주장적인 대화, 지도력의 공유, 성공적인 역할에 대한 타협, 역할공유, 개방적인 가족규칙을 만들어간다(Olson et al, 1983 : Galvin & Brommel, 1986, 이정송, 2011 재인용).

복합순환모델에 의하면, 응집성과 적응성이 극단적이기 보다 균형을 이룰 때 가족 체계는 잘 기능할 수 있으며, 가장 기능적인 가족이란 체계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형태안정(morphostatic)과 체계를 변화, 성장시키고자 하는 형태발생(morphogenesis) 간의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라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응집성에서는 ‘분리’와 ‘연결’에 속하고, 적응성에서는 ‘융통’과 ‘구조’에 속하는 균형을 이루는 가족이 극단 수준의 가족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복합순환모델은 가족의 특성과 기능 사이의 관계를 곡선적 관계로 설명한다(박수원, 2003). 평균적으로 50~60%의 가족이 균형가족을 이루고 있고 25~40%가 중간범위 가족에 해당하며 나머지 약 12~18%가 극단 가족들이다(Olson et al, 1989).

## 2. 적응 및 대학생활적응

### 1) 적응(adjustment)

Melson(1980)은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기존의 현실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기보다 새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박은주, 1994). 즉,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하여 반응하며 이런 반응은 개체의 조건과 특성에 환경의 조건을 조정시켜 나가는 것이다. 적응은 개인·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두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며 개인이 가지는 여러 가지 욕구를 사회가 적당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사회로부터의 요청을 개인이 무리 없이 잘 받아들여 개인과 사회 사이에 불균형과 불안을 없게 하여 조화가 잘 되고 균형이 잘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적응은 개인과 환경간의 불균형과 욕구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행동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적응은 주어진 환경이나 여건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가는 소극적 적응의 측면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변의 환경요인을 변화시키는 적극적 적응의 측면으로 나뉜다. 이 두가지 측면의 적응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서로 병행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김용래, 2002).

적응이 잘된 상태는 개인이 항상 변화하는 사회환경 또는 사회적 여건 하의 자기 자신의 요구가 잘 충족되거나 조절되어 일상생활에서 생겨나는 제반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스스로의 생활에 좌절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낀다. 그러나 적응이 잘되지 못할 때는 불안, 긴장,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심리적 불안감, 인지적 비능률성, 신체적 기능의 장애,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이탈행동, 욕구불만상태가 지속될 때 부적응 행동이 초래된다. 갈등에 대한 적절한 적응양식을 발견하지 못할 때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적응의 관점을 토대로 대학생활적응은 개인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환경의 구성요소들과 상호작용하며 생활하면서 여러 상황들에 적절히 반응하며 대처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대학생활적응과 하위요인

발달심리학적 측면에서 대학생은 20세를 전후한 연령 군으로써 청년기에 속한다. Erikson(1963)의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흥미 상태를 경험하고 자아정체감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인으로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다(박은민, 2001). 즉, 대학생은 신체적으로는 성인기에 속하지만 심리·사회적으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에 속하는 시기이고 불안정과 혼돈이 되기 쉬운 시기이다. 이와 같이 많은 불안정성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대학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적응된 생활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까지 겹쳐 많은 심리적인 문제와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학생활적응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해 원만한 학교생활을 해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전체 대학생의 약 10-15%)은 각종 정신질환(예를 들어, 심기증, 편집증, 경조증 정신분열증)을 체험하기도 한다(최송미, 199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기의 의존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대학생활이 끝나는 대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준비와 함께 대학이라는 환경에도 적응해야 한다. 이런 새로운 환경의 경험은 개인의 적응에 커다란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성장의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적응과정에서 겪는 새로운 변화는 인간 삶의 지속적인 과제이며 중요한 변인이다.

대학생활적응이란 적응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을 대학생과 대학환경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대학생들이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김은정, 1992). 대학생활적응의 초기 연구에서는 학업적 성취 수준이 곧 적응의 성공여부로 이해되었으나(Gerdes & Mallinckrodt, 1994, 조화진, 2004 재인용) 한 개인이 성장과 발달, 적응에 있어 심리-정서적 건강이나 대인관계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으므로 대학생활적응 또한 학업적 성취는 물론 심리, 사회적 측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안영복(1984)은 학교생활적응을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학교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바람직하게 수용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노숙영(1997)은 학습자가 학교상

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일련의 어떤 노력으로서 학습자 자신의 요구를 학교 내의 현실적 가능성에 맞추어 대처하려고 하는 학습자의 시도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대학생활적응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개인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관련된 다차원적인 현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요구들이 뒤따르는 학업적, 사회적, 정서적 적응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생활을 하면서 환경과 자발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여 졸업 후 사회생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aker와 Siryk(1984)는 대학생활 적응을 크게 네 요소로 나누었다(이운조, 2002).

첫째, 학업적 적응(Academic Adjustment)이다. 학업적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지적 학습능력 이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학업에 대한 동기, 요구에 부딪혔을 때의 행동, 학업환경과 관련된 일반적인 만족감, 시간관리, 분명한 목적의식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적 적응(Social Adjustment)이다. 사회적 적응은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능력, 교수·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포함한다.

셋째, 개인-정서적 적응(Social-emotional Adjustment)이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등 개인의 인성 형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기존재의 본질, 위치, 역할 등 자기 탐색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을 의미한다.

넷째, 대학환경 적응(Institutional Attachment)이다. 대학환경 적응은 대학에 대한 애착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정도를 나타낸다.

네 요소 의외에도 일반적으로 대학생활의 학업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밝혀진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김은정 · 이정윤 · 오경자, 1992).

첫째, 학업적 적응과 관련되는 요인들로는 자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개념들로서

긍정적인 자기평가, 긍정적인 자기개념, 자기 효능감 등이 있다. 둘째, 사회적 적응을 예측해 주는 변인들로는 자아존중감 및 통제의 외적소재, 문제해결 능력, 자기주장성 등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변인들이 대인관계에서의 불편함, 소외감, 회피행동 등을 예측해 주었다. 셋째, 개인·정서적 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일반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로 나타나며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가족관계의 역동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왔으며, 학교상담소를 찾아오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문제는 혼란된 가족내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한다(Babineay, 1975; Fulmer, Medalie, & Kord, 1982; Knayth, 1981).

### 3. 선행연구 고찰

#### 1)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에 대한 선행연구

국내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세 가지 면으로 요약될 수 있다. 가족건강성 내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개념 정의 및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그리고 가족건강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대학생의 자아분화 수준과 가족건강성 지각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강소라·박해인, 2001; 김정은, 2006)와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김효원, 2005)연구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응집성, 적응성을 높게 지각하였다.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 및 의사결정의 관계(김수아, 2003)연구와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임정아, 2005)연구,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김윤경, 2008)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윤세은, 2000)에서는 부모 모두 존재할 때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결혼 상태나 가족형태에 따라서 가족의 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했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도시 가족의 건강성(어은주, 1996)연구에서는 소득에 따라 가

족의 건강성이 차이를 보였고, 경제적 수준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족의 건강도가 낮아진다고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안경숙, 2006)와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지형, 2006), 가족건강성과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이현이, 2011)에서도 월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 결과에 따라서 성별, 학년, 연령, 월 소득 등을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가족건강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청소년 대학생, 여성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다.

먼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친구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허주연, 2005)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친구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의사소통 방식 및 가족관계 유형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분석(안춘하, 2008)연구에서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기 자녀의 가족건강성과 자아정체감에 관한 연구(윤세은, 2000)에서는 청소년이 가족의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정체감의 수준도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허정철, 2008)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미래확신성과 자기수용성등의 진로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김신애, 2007)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의 건강성과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서하진, 2008)연구에서는 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자기존중감과 사회적인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 및 의사결정의 관계(김수아, 2003)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체계유형에 따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건강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경지영, 2000)에 관한 연구에서는 가족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의 정도는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가족체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가족체계 내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가족 내 개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건강하고 행복한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족, 즉 가족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2)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김광영(1999)에 의하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학생은 학교에 대한 감정이나 태도, 동기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원만하여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행동 특성이 바람직하게 형성되어 개인의 성장은 물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고 한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김효원, 2004)연구와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김윤경, 2008)에 관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의 모든 하위 요인들이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이지선, 2009)에 관한 연구에서는 1, 2학년 학생보다 3, 4학년 학생이 대학생활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김병찬, 2000)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상관연구(손희준, 1987)에서는 가정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은 지적 지위를 가져오게 하고 낮은 지적 지위는 학교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상태는 또한 소극적 태도, 긴장, 불안감 등을 일으키며 지속적인 학업성취 및 행동발달에도 부정적이 영향을 나타냈다.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임정아, 2005)에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지형, 2006)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이혜령(2000)은 가족의 응집성과 의사소통이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여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방안으로 가족의 응집성과 의사소통의 효과를 높이는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방법 및 자료수집절차

이 연구는 제주지역에 위치한 4개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 3월 9일~3월 14일까지 7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내용이 다소 어렵거나 응답이 부실했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1년 4월 14일~4월 29일까지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대학생 총 500명을 대상으로 460부를 회수하고 부실하게 기재된 174부를 제외하고 총 286부를 최종 자료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특성은 <표-2>과 같다.

<표-2>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N=286

| 변인            | 구분            | N(%)              | 변인       | 구분       | N(%)     |         |
|---------------|---------------|-------------------|----------|----------|----------|---------|
| 성별            | 남             | 123(43.0)         | 부<br>직업  | 전문직      | 36(12.6) |         |
|               | 여             | 163(57.0)         |          | 관리·행정직   | 18(6.3)  |         |
| 연령            | 18-19         | 117(40.9)         |          | 기술직      | 43(15.0) |         |
|               | 20-21         | 83(29.0)          |          | 사무직      | 26(9.1)  |         |
|               | 22세이상         | 86(30.1)          |          | 노동직      | 12(4.2)  |         |
|               |               |                   |          | 서비스직     | 45(15.7) |         |
| 학년            | 1학년           | 51(17.8)          |          | 농림·어업    | 47(16.4) |         |
|               | 2학년           | 122(42.7)         |          | 판매직      | 16(5.6)  |         |
|               | 3학년           | 77(26.9)          |          | 무직       | 9(3.1)   |         |
|               | 4학년           | 36(12.6)          |          | 기타       | 19(6.6)  |         |
| 가족<br>구성      | 부모+나          | 14(4.9)           |          | 모<br>직업  | 전문직      | 11(3.8) |
|               | 부모+나+형제자매     | 193(67.5)         |          |          | 관리·행정직   | 8(2.8)  |
|               | 조부모+부모+나+형제자매 | 29(10.1)          | 기술직      |          | 5(1.7)   |         |
|               | 부+나+형제자매      | 20(7.0)           | 사무직      |          | 17(5.9)  |         |
|               | 모+나+형제자매      | 16(5.6)           | 노동직      |          | 10(3.5)  |         |
|               | 기타            | 14(4.9)           | 서비스직     |          | 61(21.3) |         |
| 부<br>최종<br>학력 | 중졸이하          | 36(12.6)          | 농림·어업    |          | 34(11.9) |         |
|               | 고졸이하          | 143(50.0)         | 판매직      |          | 27(9.4)  |         |
|               | 대졸이상          | 99(34.6)          | 전업주부     |          | 75(26.2) |         |
| 모<br>최종<br>학력 | 중졸이하          | 42(14.7)          | 한달<br>소득 |          | 무직       | 9(3.1)  |
|               | 고졸이하          | 160(55.9)         |          |          | 기타       | 17(5.9) |
|               | 대졸이상          | 75(26.2)          |          |          | 100만원 미만 | 25(8.7) |
|               |               | 101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          | 80(28.0) |          |         |
|               |               | 201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          | 88(30.8) |          |         |
|               |               | 301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          | 53(18.5) |          |         |
|               |               | 401만원 이상          | 40(14.0) |          |          |         |

\* 일부분항에 대한 무응답으로 인해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음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대학생은 모두 286명으로 성별은 여자가 57.0%(163명), 남자가 43.0%(123명)로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연령은 18-19세가 40.9%(117명)로 가장 높았고, 22세 이상이 30.1%(86명), 20-21세가 29.0%(83명)로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2학년이 42.7%(122명)로 가장 높고, 3학년이 26.9%(77명), 1학년이 17.8%(51명), 4학년이 12.6%(36명)순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은 부모+나+형제자매가 67.5%(193명)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조부모+부모+나+형제자매 10.1%(29명), 부+나+형제자매 7.0%(20명), 모+나+형제자매 5.6%(16명), 부모+나 4.9%(14명), 기타구성 4.9%(14명)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부 학력은 고졸이하가 50.0%(143명)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졸 이상이 34.6%(99명), 중졸이하가 12.6%(36명)로 순으로 나타났다. 모 학력은 고졸이하가 55.9%(160명)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대졸이상이 26.2%(75명), 중졸이하가 14.7%(42명)로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에 대해 살펴보면 부 직업은 농림·어업이 16.4%(47명)로 가장 높고, 서비스직이 15.7%(45명), 기술직이 15.0%(43명), 전문직이 12.6%(36명), 사무직이 9.1%(26명), 기타 6.6%(19명), 관리·행정직 6.3%(18명), 판매직이 5.6%(16명), 노동직이 4.2%(12명), 무직이 3.1%(9명)로 순으로 나타났다. 모 직업은 전업주부가 26.2%(75명)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서비스직이 21.3%(61명), 농림·어업이 11.9%(34명), 판매직이 9.4%(27명), 사무직 5.9%(17명), 기타 5.9%(17명), 전문직이 3.8%(11명), 노동직 3.5%(10명), 무직이 3.1%(9명), 관리·행정직이 2.8%(8명), 기술직이 1.7%(5명)순으로 나타났다.

한달 소득을 살펴보면 201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8%(88명)로 가장 높고 101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8.0%(80명), 301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8.5%(53명), 401만원 이상 14.0%(40명), 100만원 미만 8.7%(25명)순으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가족체계(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 척도)

가족체계를 조사하는 도구로서 Olson(1989)등이 개발한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Ⅲ를 전귀연(1993)이 번역,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FACESⅢ는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유사문항과 반복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16문항으로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척도별 문항과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표-3>와 같다.

<표-3> 가족체계의 하위척도별 문항 및 신뢰도

| 하위척도 | 해당문항번호              | 문항 수 | 신뢰도  |
|------|---------------------|------|------|
| 응집성  | 1,3,5,7,9,12,14,16  | 8    | .833 |
| 적응성  | 2,4,6,8,10,11,13,15 | 8    | .822 |
| 전체   |                     | 16   | .903 |

가족체계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가족응집성에 대한 신뢰도가 .833으로 나타났고, 가족적응성에 대한 신뢰도가 .822,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903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문항에서 .6이상으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도구로는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 번역, 김효원(2005)이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67문항 중 유사문항과 반복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고 다른 하위요인들과 중복된 대학환경적응척도를 제외하여 총 40문항

을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 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 까지의 5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고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하위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적 적응으로 대학의 다양한 교육적인 요구들, 학업에 대한 동기화, 학업적 노력에 대한 만족 등 학업과 관련된 생활(시험, 수업등)에 대한 적응을 측정한다.

둘째, 사회적 적응으로 대학 내의 대인관계나 과외활동과 같은 생활에 대한 적응을 측정한다.

셋째, 개인-정서적 적응으로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심리적 스트레스 및 신체화 장애의 정도를 측정한다.

각 하위척도별 문항과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표-4>과 같다.

<표-4> 대학생활적응 하위척도별 문항 및 신뢰도

| 하위척도      | 문항수 | 해당문항번호  | 신뢰도  |
|-----------|-----|---|------|
| 학업적 적응    | 17  | *3, *6, *11, *13, 14, *16, 17, *19, *22, *25, *26, 27, 28, *32, 33, *35, 36 | .830 |
| 사회적 적응    | 9   | 2, 5, 9, 10, 20, 24, 30, 37, 39   | .804 |
| 개인-정서적 적응 | 14  | *1, *4, *7, *8, *12, 15, *18, *21, *23, *29, *31, 34, *38, 40               | .844 |
| 전체        | 40  |   | .916 |

(\*는 역문항)

대학생활적응의 요인에 대한 신뢰도 분석 결과, 학업적 적응에 대한 신뢰도가 .830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적응에 대한 신뢰도가 .804, 개인-정서적 적응에 대한 신뢰도가 .844, 전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신뢰도가 .916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문항에서 .6이상으로 각 문항 간 내적 일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적 분석처리는 SPSS for windows 12.0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 대학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 way-anova, Scheffe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 < .05$ ,  $p < .01$ ,  $p < .001$ 에서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

#### 1)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의 전반적 경향

<표-5> 연구대상자의 가족응집성·가족적응성 전반적 경향

(N=286)

| 구분    | 문항번호 | 문항내용   | M    | SD    |
|-------|------|--|------|-------|
| 가족응집성 | 1    | 우리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청한다.                          | 3.65 | .965  |
|       | 3    | 우리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 준다.                 | 3.68 | .952  |
|       | 5    | 우리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끼리만 함께 일하기를 좋아한다.                 | 2.71 | 1.061 |
|       | 7    | 우리가족은 외부사람들 보다는 우리가족끼리가 더 친하다.                   | 3.32 | 1.070 |
|       | 9    | 가족끼리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 3.11 | 1.103 |
|       | 12   | 우리가족은 가족행사가 있을 때 가족이 모두 참여한다.                    | 3.39 | 1.114 |
|       | 14   |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 3.27 | 1.043 |
|       | 16   | 우리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식구들과 상의한다.                 | 3.02 | 1.144 |
| 계     |      |  | 3.27 | .719  |
| 가족적응성 | 2    |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 3.47 | .979  |
|       | 4    | 우리가족에서 자녀는 집안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3.44 | 1.010 |
|       | 6    | 식구 중 누구라도 상황에 따라 가족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3.34 | 1.059 |
|       | 8    | 우리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 3.24 | .967  |
|       | 10   | 우리 집에서는 자녀가 받는 벌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한다.          | 2.78 | 1.054 |
|       | 11   | 우리가족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면 자녀들도 함께 의논한다.                 | 3.20 | 1.089 |
|       | 13   | 우리 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규칙이 바뀔 수 있다.                     | 3.29 | .919  |
|       | 15   | 우리가족은 집안일을 할 때, 식구 모두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다.              | 2.91 | 1.204 |
| 계     |      |  | 3.21 | .693  |
| 총계    |      |  | 3.24 | .668  |

가족응집성 정도를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8문항 가운데 ‘우리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 준다’가 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우리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청한다’가 3.65점으로 나타났다. ‘우리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끼리만 함께 일하기를 좋아한다’가 2.7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문제발생 시 가족을 가장 든든하고 믿을만한 조력자로 생각하는 경향과 함께 실질적인 가족 간의 활동공유나 행사의 참여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가족적응성 정도를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8문항 가운데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가 3.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우리가족에서 자녀는 집안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가 3.44점으로 나타났다고, ‘우리 집에서는 자녀가 받는 벌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한다’가 2.7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가족의 일을 결정 할 때 자녀들의 참여가 인정되거나 부모와 자녀의 교육 방침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족의 통제나 훈육이 아직은 융통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

<표-6>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 전반적 경향

(N=286)

| 구분                              | 문항<br>번호                                       | 문항내용   | M     | SD    |
|---------------------------------|--|--|-------|-------|
| 학<br>업<br>적<br>응                | 3  | 나는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 3.30  | 1.070 |
|                                 | 6  | 나는 시험기간 중에 잘 지내지 못한다.                                  | 2.86  | 1.127 |
|                                 | 11   | 나는 학과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 3.12  | 1.084 |
|                                 | 13   | 나는 해야 되는 공부를 충분히 해 낼 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 2.82  | 1.080 |
|                                 | 14   | 학사학위(전문학사)를 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 3.10  | 1.183 |
|                                 | 16   | 나는 최근에 공부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3.51  | 1.011 |
|                                 | 17   | 나는 수강과목의 과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                              | 2.21  | .957  |
|                                 | 19   | 나는 요즘 공부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 3.30  | 1.172 |
|                                 | 22   | 나는 요즘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 2.81  | 1.098 |
|                                 | 25   | 나는 요즘 공부하려고 할 때 주의집중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3.35  | 1.119 |
|                                 | 26   | 나의 노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 3.01  | 1.033 |
|                                 | 27   |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                       | 2.94  | .986  |
|                                 | 28   |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                                     | 4.02  | 1.111 |
|                                 | 32   | 나는 과제물을 시작하는데 힘이 든다.                                   | 3.32  | 1.188 |
| 33                              | 나는 이번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                    | 3.08   | .975  |       |
| 35                              |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에서의 내 학과 공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2.83   | 1.189 |       |
| 36                              | 나는 지금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 3.24   | 1.050 |       |
| 계                               |  |  | 2.96  | .564  |
| 사<br>회<br>적<br>응                | 2  | 나는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껏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 3.41  | 1.038 |
|                                 | 5  |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 3.50  | .932  |
|                                 | 9  | 나는 교수님과 공적인 만남 이외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                     | 1.91  | 1.010 |
|                                 | 10   | 나는 특히 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만족한다.                          | 3.15  | 1.107 |
|                                 | 20   | 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과외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 2.64  | 1.104 |
|                                 | 24   | 나는 대학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3.26  | 1.017 |
|                                 | 30   | 나는 대학에서의 친목활동(동아리 등)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2.53  | 1.244 |
|                                 | 37   | 나는 무슨 문제든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 명 있다.      | 3.80  | .991  |
| 39                              |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 3.43   | 1.005 |       |
| 계                               |  |  | 3.07  | .657  |
| 개<br>인<br> <br>정<br>서<br>적<br>응 | 1  | 최근 나는 긴장감을 느끼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 3.48  | 1.193 |
|                                 | 4  | 나는 요즘 기분이 매우 우울하고 울적하다.                                | 3.02  | 1.227 |
|                                 | 7  | 나는 최근에 피곤할 때가 많다.                                      | 3.99  | .991  |
|                                 | 8  | 홀로 선다는 것, 내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 3.38  | 1.123 |
|                                 | 12   | 나는 요즘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없다.                                | 2.82  | 1.165 |
|                                 | 15   | 나는 요즘 식욕이 좋다.  | 3.49  | 1.132 |
|                                 | 18   | 나는 최근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 3.22  | 1.295 |
|                                 | 21   | 나는 요즘 학교상담소나 그 외 심리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 | 2.09  | 1.099 |
|                                 | 23   |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었다(혹은 줄었다).                             | 3.07  | 1.162 |
|                                 | 29   | 가끔, 내 생각이 너무 쉽게 뒤죽박죽이 된다.                              | 3.48  | 1.101 |
|                                 | 31   |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                        | 3.69  | 1.085 |
| 24                              | 나는 요즘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낀다.                           | 2.96   | 1.181 |       |
| 38                              | 나는 대학생활에서 닥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3.05   | 1.113 |       |
| 40                              | 나는 대학생활에서 앞으로 닥칠 도전에 만족스럽게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      | 3.44   | 1.115 |       |
| 계                               |  |  | 2.90  | .658  |
| 총계                              |  |  | 2.96  | .532  |

학업적 적응을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17문항 가운데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가 4.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수강과목의 과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 2.2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과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고 학업에 대한 불안이 높은 학생일 수록 대학생활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

사회적 적응을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9문항 가운데 ‘나는 무슨 문제든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 명 있다’가 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교수님과 공적인 만남 이외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가 1.9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변강희(2009)연구에서는 교수는 학생들의 사회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태도 등을 학습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며 학생 개개인의 욕구와 자존심을 존중하고, 교수와의 인간관계와 상호작용은 스승에 대한 사랑과 존경, 신뢰를 심어주어 대학생활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학생들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학년에게는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고학년에게는 본격적인 취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과 교수와의 상호작용을 높여 대학생활적응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개인-정서적 적응을 각 문항별로 살펴보면 14문항 가운데 ‘나는 최근에 피곤할 때가 많다’가 3.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나는 요즘 학교상담소나 그 외 심리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가 2.0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대학생활적응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 및 가족적응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표-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 · 가족적응성

(N=286)

| 변인       | 구분      | 가족응집성 |      |          |    | 가족적응성 |      |          |    | 전체   |      |          |    |
|----------|---------|-------|------|----------|----|-------|------|----------|----|------|------|----------|----|
|          |         | M     | SD   | F(t)     | S  | M     | SD   | F(t)     | S  | M    | SD   | F(t)     | S  |
| 성별       | 남       | 3.40  | .761 | 2.652**  |    | 3.37  | .698 | 3.525*** |    | 3.38 | .696 | 3.258*** |    |
|          | 여       | 3.17  | .672 |          |    | 3.09  | .665 |          |    | 3.13 | .626 |          |    |
| 연령       | 18-19세  | 3.09  | .762 | 6.747*** | a  | 3.02  | .682 | 9.018*** | a  | 3.05 | .690 | 8.730*** | a  |
|          | 20-21세  | 3.35  | .635 |          | b  | 3.26  | .701 |          | b  | 3.30 | .614 |          | ab |
|          | 22세이상   | 3.44  | .688 |          | b  | 3.42  | .636 |          | b  | 3.43 | .629 |          | b  |
| 학년       | 1학년     | 3.12  | .979 | 3.005*   | a  | 3.01  | .868 | 3.172*   | a  | 3.06 | .895 | 3.362*   | a  |
|          | 2학년     | 3.19  | .689 |          | a  | 3.17  | .668 |          | ab | 3.18 | .647 |          | a  |
|          | 3학년     | 3.44  | .593 |          | b  | 3.37  | .653 |          | ab | 3.40 | .562 |          | b  |
|          | 4학년     | 3.39  | .551 |          | b  | 3.27  | .489 |          | b  | 3.33 | .482 |          | b  |
| 가족<br>구성 | 1       | 2.98  | .677 | 2.380*   | a  | 3.04  | .726 | 3.045*   | ab | 3.01 | .686 | 2.829*   | ab |
|          | 2       | 3.31  | .699 |          | b  | 3.23  | .675 |          | ab | 3.27 | .645 |          | b  |
|          | 3       | 3.34  | .606 |          | b  | 3.22  | .598 |          | ab | 3.28 | .550 |          | b  |
|          | 4       | 2.91  | .838 |          | a  | 2.98  | .757 |          | a  | 2.94 | .783 |          | a  |
|          | 5       | 3.51  | .777 |          | b  | 3.66  | .653 |          | b  | 3.59 | .689 |          | b  |
|          | 6       | 3.02  | .820 |          | a  | 2.82  | .798 |          | ab | 2.92 | .778 |          | a  |
| 부<br>학력  | 중졸이하    | 3.05  | .645 | 2.406    |    | 3.06  | .595 | 1.968    |    | 3.05 | .586 | 2.335    |    |
|          | 고졸이하    | 3.28  | .711 |          |    | 3.19  | .682 |          |    | 3.24 | .648 |          |    |
|          | 대졸이상    | 3.34  | .704 |          |    | 3.31  | .702 |          |    | 3.32 | .676 |          |    |
| 모<br>학력  | 중졸이하    | 3.21  | .675 | .299     |    | 3.23  | .699 | .023     |    | 3.22 | .643 | .082     |    |
|          | 고졸이하    | 3.30  | .741 |          |    | 3.22  | .697 |          |    | 3.26 | .685 |          |    |
|          | 대졸이상    | 3.29  | .644 |          |    | 3.24  | .659 |          |    | 3.27 | .607 |          |    |
| 월<br>소득  | 100미만   | 2.79  | .872 | 6.521*** | a  | 2.63  | .748 | 8.919*** | a  | 2.71 | .770 | 8.501*** | a  |
|          | 101-200 | 3.10  | .671 |          | ab | 3.04  | .646 |          | ab | 3.07 | .606 |          | ab |
|          | 201-300 | 3.40  | .630 |          | b  | 3.39  | .619 |          | b  | 3.40 | .588 |          | b  |
|          | 301-400 | 3.33  | .744 |          | b  | 3.30  | .660 |          | b  | 3.32 | .669 |          | b  |
|          | 401이상   | 3.53  | .671 |          | b  | 3.38  | .699 |          | b  | 3.45 | .660 |          | b  |

1) \*p<.05, \*\*p<.01, \*\*\*p<.001

2) 가족구성 : 1(부모+나), 2(부모+나+형제자매), 3(조부모+부모+나+형제자매), 4(부+나+형제자매), 5(모+나+형제자매), 6(기타)

3) S :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가족응집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에서 성별, 연령, 학년, 가족구성, 월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가족적응성은 성별, 연령, 학년, 가족구성, 월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가족응집성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가족응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고 가족의 변화능력이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적응성 차이 역시 남자가 여자보다 가족적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가족응집성 차이를 살펴보면 18-19세 집단과 20-21세, 22세 이상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적응성 역시 18-19세 집단과 20-21세, 22세 이상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22세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응답자의 학년에 따른 가족응집성 차이를 살펴보면 1, 2학년 집단과 3, 4학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가족적응성은 1학년 집단과 4학년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구성에 따른 가족응집성 차이는 부모+나, 부+나+형제자매, 기타구성 집단과 부모+나+형제자매, 조부모+부모+나+형제자매, 모+나+형제+자매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적응성 차이는 부+나+형제자매와 모+나+형제자매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족구성에서는 모+나+형제자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구성원 중 특히 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월 소득에 따른 가족응집성 차이를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 집단과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이상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401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가족적응성의 차이를 보면 100만원미만 집단과 201-300만원,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월 소득이 201-30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소한 차이로 401만원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월 소득은 그 가정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월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어 가족응집성이 높아진다는 김진숙(1983), 김진희(198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를 실시하였고,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8>에 제시하였다.

<표-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N=286)

| 변인    | 구분      | 대학생활적응 |      |          |    |       |      |           |    |          |      |           |    |      |      |           |    |
|-------|---------|--------|------|----------|----|-------|------|-----------|----|----------|------|-----------|----|------|------|-----------|----|
|       |         | 학업적적응  |      |          |    | 사회적적응 |      |           |    | 개인-정서적적응 |      |           |    | 전체   |      |           |    |
|       |         | M      | SD   | F(t)     | S  | M     | SD   | F(t)      | S  | M        | SD   | F(t)      | S  | M    | SD   | F(t)      | S  |
| 성별    | 남       | 3.11   | .558 | 3.996*** |    | 3.31  | .621 | 5.522***  |    | 3.11     | .641 | 4.958***  |    | 3.16 | .506 | 5.550***  |    |
|       | 여       | 2.85   | .544 |          |    | 2.89  | .629 |           |    | 2.74     | .625 |           |    | 2.82 | .506 |           |    |
| 연령    | 18-19세  | 2.80   | .556 | 9.032*** | a  | 2.88  | .682 | 10.217*** | a  | 2.73     | .634 | 12.513*** | a  | 2.80 | .525 | 13.864*** | a  |
|       | 20-21세  | 3.03   | .516 |          | ab | 3.12  | .608 |           | b  | 2.85     | .590 |           | b  | 2.99 | .461 |           | b  |
|       | 22세이상   | 3.12   | .569 |          | b  | 3.28  | .598 |           | b  | 3.18     | .670 |           | b  | 3.17 | .531 |           | b  |
| 학년    | 1학년     | 2.97   | .528 | 4.762*** | a  | 3.08  | .644 | 8.911***  | a  | 2.82     | .610 | 4.769**   | a  | 2.94 | .487 | 6.957***  | a  |
|       | 2학년     | 2.83   | .587 |          | ab | 2.87  | .703 |           | ab | 2.80     | .654 |           | a  | 2.83 | .555 |           | a  |
|       | 3학년     | 3.09   | .486 |          | ab | 3.27  | .489 |           | b  | 2.94     | .614 |           | ab | 3.08 | .435 |           | ab |
|       | 4학년     | 3.13   | .600 |          | b  | 3.33  | .625 |           | b  | 3.25     | .724 |           | b  | 3.22 | .571 |           | b  |
| 가족 구성 | 1       | 2.68   | .493 | 1.151    |    | 3.22  | .700 | .747      |    | 2.88     | .642 | .525      |    | 2.87 | .491 | .442      |    |
|       | 2       | 2.97   | .584 |          |    | 3.03  | .663 |           |    | 2.91     | .669 |           |    | 2.96 | .555 |           |    |
|       | 3       | 3.00   | .505 |          |    | 3.24  | .560 |           |    | 2.99     | .570 |           |    | 3.05 | .442 |           |    |
|       | 4       | 2.88   | .380 |          |    | 3.10  | .641 |           |    | 2.71     | .582 |           |    | 2.87 | .347 |           |    |
|       | 5       | 3.03   | .596 |          |    | 3.13  | .679 |           |    | 2.83     | .725 |           |    | 2.98 | .568 |           |    |
|       | 6       | 3.14   | .612 |          |    | 3.01  | .736 |           |    | 2.97     | .749 |           |    | 3.05 | .627 |           |    |
| 부 학력  | 중졸이하    | 3.02   | .662 | .603     |    | 3.20  | .667 | 1.633     |    | 2.98     | .802 | 1.739     |    | 3.05 | .632 | 1.600     |    |
|       | 고졸이하    | 2.93   | .547 |          |    | 3.01  | .642 |           |    | 2.85     | .631 |           |    | 2.92 | .505 |           |    |
|       | 대졸이상    | 3.00   | .559 |          |    | 3.13  | .682 |           |    | 2.99     | .601 |           |    | 3.03 | .522 |           |    |
| 모 학력  | 중졸이하    | 2.95   | .643 | .088     |    | 3.12  | .667 | .132      |    | 2.85     | .777 | .367      |    | 2.95 | .637 | .096      |    |
|       | 고졸이하    | 2.95   | .520 |          |    | 3.08  | .642 |           |    | 2.88     | .630 |           |    | 2.95 | .500 |           |    |
|       | 대졸이상    | 2.98   | .624 |          |    | 3.05  | .670 |           |    | 2.95     | .651 |           |    | 2.99 | .554 |           |    |
| 월 소득  | 100미만   | 2.93   | .520 | .719     |    | 2.98  | .725 | 4.489**   | a  | 2.76     | .694 | 4.723***  | a  | 2.88 | .515 | 3.523**   | a  |
|       | 101-200 | 2.92   | .559 |          |    | 2.86  | .621 |           | a  | 2.73     | .631 |           | a  | 2.84 | .513 |           | a  |
|       | 201-300 | 2.93   | .557 |          |    | 3.08  | .630 |           | ab | 2.86     | .635 |           | ab | 2.94 | .527 |           | a  |
|       | 301-400 | 3.04   | .597 |          |    | 3.26  | .634 |           | ab | 3.08     | .624 |           | b  | 3.11 | .528 |           | b  |
|       | 401이상   | 3.04   | .580 |          |    | 3.28  | .660 |           | b  | 3.17     | .662 |           | b  | 3.14 | .529 |           | b  |

1) \*\*p<.01,\*\*\*p<.001

2) 가족구성: 1(부모+나), 2(부모+나+형제자매), 3(조부모+부모+나+형제자매), 4(부+나+형제자매), 5(모+나+형제자매), 6(기타)

3) S : Scheffe's Multiple Range test

대학생활적응 차이를 살펴보면 학업적 적응은 성별, 연령, 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적 적응은 성별, 연령, 학년, 월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성별, 연령, 학년, 월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학생활적응 수준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학생은 독립적, 경쟁적, 적극적이기를 기대하는 문화적, 사회적인 영향을 받고 새로운 환경에 더 많은 참여를 하는 반면 여학생은 취약한 환경에 있다.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여학생의 대학생활적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학업적 적응 18-19세 집단과 22세 이상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적 적응은 18-19세 집단과 20-21세, 22세 이상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정서적 적응에서는 18-19세 집단과 20-21세, 22세 이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22세 이상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학년에 따른 학업적 적응 차이는 1학년 집단과 4학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사회적 적응은 1학년 집단과 3, 4학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1, 2학년 집단과 4학년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대학환경과 학업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게 되어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적인 면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 보인다. 대학생활적응에서 2학년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학년으로 진학하면서 전공 선택 과정에서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확신이 없는 상태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난 것이라 보여진다.

월 소득에 따른 학업적 적응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회적 적응에서는 100만원 미만, 101-200만원 집단과 401만원 이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100만원 미만, 101-200만원 집단과 301-400만원, 401만원 이상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401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높은 소득이 경제적인 풍족함 뿐 아니라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고 이런 환경의 자녀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타 집단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 3.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9>에 제시하였다.

<표-9>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

|              | 가족<br>응집성 | 가족<br>적응성 | 학업적<br>적응 | 사회적<br>적응 | 개인-정서적<br>적응 |
|--------------|-----------|-----------|-----------|-----------|--------------|
| 가족<br>응집성    | 1         |           |           |           |              |
| 가족<br>적응성    | .792**    | 1         |           |           |              |
| 학업적<br>적응    | .306**    | .286**    | 1         |           |              |
| 사회적<br>적응    | .285**    | .308**    | .559**    | 1         |              |
| 개인-정서적<br>적응 | .339**    | .327**    | .695**    | .500**    | 1            |

\*\*p<.01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요인들이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가족응집성, 적응성이 좋을수록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이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족원간의 유대,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가족의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 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잘 이루어 질수록 대학생활적응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다.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좋다는 것은 가족 간에 상호작용이 많고 사회적인 능력을 습득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응에 영향을 주는 한 변인이라고 본 신지영(2000)의 주장을 지지한다. 또한 가족간의 관계가 좋을수록 그만큼 가족의 기능 또한 높은 것으로 이런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이 연구는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나타나는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가족의 체계적 역동성을 중심으로 가족체계 내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향상을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돕는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대학생들의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고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연령, 학년, 가족구성, 부의 최종학력, 모의 최종학력, 가계 월 소득의 7개의 변인을 포함하였으며 가족체계 내의 가족응집성 8개, 가족적응성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 적응 17개, 사회적 적응 9개, 개인-정서적 적응은 14개로 구성되었다.

연구방법은 대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 way-anova, Scheffe Multiple Range test,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자료의 통계적 분석 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를 살펴보면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가족응집성 문항 가운데 ‘우리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 준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우리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끼리

만 함께 일하기를 좋아한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는 가족을 든든한 조력자로 생각하는 경향과 함께 아직은 가족 간 활동공유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적응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우리 집에서는 자녀가 받는 벌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한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가족의 일을 결정할 때 자녀의 참여는 인정되지만 부모와 자녀의 교육방침에 대해서는 의견 교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가족의 통제, 훈육이 아직은 융통적이지 않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을 살펴보면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이 중간 수준으로 학업적 적응 문항에서는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나는 수강과목의 과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생들이 과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 적응 문항에서는 '나는 무슨 문제든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 명 있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나는 교수님과 공적인 만남 이외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교수와의 상호작용은 스승의 대한 존경과 신뢰를 주어 대학생활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학생들과 교수간의 상호작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개인-정서적 적응 문항에서는 '나는 최근에 피곤할 때가 많다'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나는 요즘 학교상담소나 그 외 심리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의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대학생들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은 성별, 연령, 학년, 가족구성, 월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차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하게 느끼고 가족의 변화능력이 큰 것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22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의 학년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차이는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족구성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을 살펴보면 모+나+형제+자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존재여부보다는 가족 간 상호 작용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특히 상호작용의 빈도가 어머니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월 소득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차이는 201만원-300만원과 401이상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월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월 소득이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대학생활적응을 살펴보면 먼저 학업적 적응은 성별, 연령, 학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회적 적응은 성별, 연령, 학년, 월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성별, 연령, 학년, 월 소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살펴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모든 영역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성이 더 강한 남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학습 이외의 사회 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되면서 높아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응답자의 연령에 따른 학업적 적응 차이,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에서 22세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응답자의 학년에 따른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은 4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과 연령이 높을수록 대학환경과 학업에 대한 적응력이 생기게 되어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하는지 방법적인 면이 향상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월 소득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적 적응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에서는 401만원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이 경제적인면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 이런 환경의 자녀들이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하위 요인들이 정적인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응집성, 적응성이 좋을수록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로 가족의 기능에 있어서 응집력과 적응력이 균형을 이룰수록 더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는 Olson등(1986)의 이론을 지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 2. 결론 및 제언

첫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 수준으로 자신의 가족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이 높아 서로의 친구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고, 문제 해결 시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거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로부터 벗어나 가족 내의 권력구조나 역할, 관계, 규칙 등이 보다 융통적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이 연구에서 조사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 연령, 학년, 가족구성, 월 소득이 주요변수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의 경우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에서는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모+나+형제·자매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구성원 중 특히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은 어머니의 영향을 가장 많은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하는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중간수준으로 개인-정서적 적응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활적응에 있어 대학생들이 대인관계, 감정표현등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이 연구에서 조사된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 연령, 학년, 월 소득이 대학생활적응에 주요변수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대학생활 적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활동성이 더 강한 남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접하면서 학습 이외의 사회 활동에 더 많은 참여를 하게 되면서 대학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보여진다. 또한 남학생은 독립적, 경쟁적, 적극적이기를 기대하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에 급변하는 사회의 흐름에 맞춰 여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다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이 부모와 완전히 독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즉, 가족의 정서적 유대나 가

족의 지지가 높은 경우 대학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자녀가 대학생활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긍정적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 가족의 적절한 지도력과 훈육 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에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좋은 가족이 개인의 독립적 요구와 가족 일체감간의 적절한 수준을 제공함과 동시에 민주주의적인 리더쉽 밑에서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역할과 규칙이 변화되어 새로운 환경인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 보여진다. 다시 말해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기능적으로 작용할 때 가족 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여 자녀들에게 정서적 유대와 안정감을 제공한다. 또한 가족 내에서 사회적인 능력을 습득하여 가족 내적·외적인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융통적이고 유연한 사고체계를 가질 수 있다. 즉, 가족응집성, 적응성이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에 높은 상관을 이루는 이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가족체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가족상호작용에 중점을 두어 대학생의 적응을 도우려는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 져야한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제주도내 대학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대학생에 대한 내용으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을 확대한다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 사용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대한 척도가 우리와 문화적 특성과 가치관, 욕구가 다른 외국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한국 가족의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우리 문화에 맞는 새로운 기준과 도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대학생활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정체감 형성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자신의 가족역동과 그 속의 개인, 즉 자신의 역동을 읽고 현재 자신이 지각하는 개별성과 관계성을 통찰함으로써 보다 적응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으리라 보여진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유숙(1998),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학지사  
유영주(2011), 건강가족연구, 서울 : 교문사

### <국내논문>

- 허정철(2008), 가족기능이 청소년의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은주(2009), 가족기능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갈등 해결 전략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정송(2011), 가족기능성과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현이(2011), 가족건강성과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심혜숙(1994),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천숙(1996),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맹영임(2002),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원옥(2003), 가족체계유형과 미혼성인의 자아분화, 우울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원(2003), 가족체계유형과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관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효원(2004), 가족체계유형 및 진로결정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순미(2011), 가정환경의 건강성이 청소년의 정서지능, 사회지능 및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계숙(2004), 건강가족의 요소에 관한 연구: 가족체계와 건강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 손희준(1987),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효주(2009), 대인관계성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수선(2010), 대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족개념과 가족건강성의 관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의지, 14. 38-39
- 이지형(2006), 대학생이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혜(2004), 대학생의 가족체계, 자아존중감 및 대인관계간의 관계, 호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수(2007), 대학생이 지각하는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관 및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진(1998),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가족체계유형과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경숙(2006),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하진(2009),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이 자아존중감과 행복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아(2003), 대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자아분화 정도 및 의사결정의 관계,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지영(2000)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주연(2005),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체계가 아동의 친구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혜준(1994). 분리-개별화와 가족응집력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경은(2001)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족기능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정숙(2006),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부모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방식이 아동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희(2007), 알코올 중독자 대학생 자녀의 대학생활적,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은주(1994),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윤조(2002), 자기애적 성격특성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영(2003),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지선(2009), 자기효능감이 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병찬(2000), 전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재명(2006), 정서표현갈등과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성윤(2005),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은형(2010), 중학생에 의해 지각된 가족체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교우관계 및 교사-학생관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변강희(2009), 지방캠퍼스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 연구, 건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유경(2009). 제한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민주, 황기아(2007),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학회지, 10(2). 43-51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체계유형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윤경(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아(2005), 청소년기의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애(2008). 청소년의 가족체계유형, 학교생활적응 및 행동문제의 관련성,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미(2001),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경숙(1985), 청소년 부적응 행동에 있어서 Minuchin과 Haley의 가족치료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연(2006),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여향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유진, 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6
- 유인선(2011), 청소년의 학교적응요인 메타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희(1999), 한국인의 가족 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해외논문>

Baker, R, W, & Siryk, B(1984) Meas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9-189

Olson, D. H., Portner, J., & Lavee, Y.(1985). FACES-III Family Social Scienc,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Olson, D. H Russel, C. S., & Sprenkle, D, H, (1983).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IV. Theoretical update. *Family Processes*, 22, 69-33

The logo of Jeju National University is a circular emblem. It features a stylized flame or torch in the center, with the university's name 'JEJU NATIONAL UNIVERSITY' written in English around the top and '제주대학교' in Korean around the bottom. The year '1952' is also present. The logo is semi-transparent and serves as a background for the title page.

## Absrtact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Family System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Kim, Su-ji

Home Econom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Thesis Director: Prof. Kim Hye-sook

This study aims to find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cohesion & family adaptability within family system, perceived by university students in Jeju,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to provide basic data that will help students adapt to college life through improved family coherence and family adaptability.

As for the research metho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students of 4 universities located Jeju. The survey was carried out from April 14, 2011 to April 29, 2011. 46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retrieved from a total of 500 students; and a total of 286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analyzed as final data, with 174 copies containing missing data being excluded. As for the research tools, FACESIII developed by Olson et al(1989), which was translated and modified by Jeon Gwi-yeon (1993), was used to measure family system; and 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 designed by Baker and Siryk(1984), which was translated by Hyeon Jin-won and modified by Kim Hyo-won(2005), was used to measure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data collected in this study were subjected to t-test, one way-ANOVA, and Scheffe Multiple Range test, after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obtained, using SPSS for windows 12.0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levels of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perceived by the university students were moderate or higher, which shows that they perceived their families positively. That is, it may be said that family functions such as ability to deal with problems are efficiently functioning, with high emotional closeness and smooth communication among family members.

Second, among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gender, age, grade, family structure,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that have effects on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That is, it was found that family cohesion and family adaptability were high in the case of a male junior student 22 years old or above who lives with mother in a household with 4.01 million won or more of monthly income.

Third, the level of adaptation to college life perceived by the students was overall moderate, with social adaptation being the highest, followed by academic adaptation and individual-emotional adaptation. Such findings show that in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university students experience the greatest difficulty in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such as personal relations and emotional expression, compared to other sub-factors.

Fourth, it was found that gender, age, grade,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are important variables that have effec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among socio-demographic variables investigated in this study. Results by sub-factor are as follows:

In academic adaptation, gender, age, and grad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22 years or above in age, senior, and male students show high academic adaptation.

In social adaptation, gender, age, grade, and monthly incom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22 years or above in age, senior, male students with 4.01 million won or above of monthly household income show high social adaptation.

In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gender, age, grade, and monthly household income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t was found that 22 years or above in age, senior, male students with 4.01 million or above of monthly household income show high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Fifth, as for correlation between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family system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ll the sub-factor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This explains that more closeness among family members, communication between family members, and ability to solve family problems, the more positive effects they have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family system is important to individuals because of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 cohesion & family adaptability within family system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and that attempts to help students to adapt to college life should be made actively, with emphasis being laid on interaction within family.

<부록>

NO\_\_\_\_\_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대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체계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지의 결과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학문적인 목적 이 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행동이 일치하거나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1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김수지(010-5532-4683)

◆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
2. 귀하의 연령은 만 몇 세? ( )
3.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휴학생은 최종 이수학년에 표기)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의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부모 + 나  
② 부모 + 나 + 형제자매  
③ 조부모 + 부모+ 나 + 형제자매  
④ 부 + 나 + 형제자매  
⑤ 모 + 나 + 형제자매  
⑥ 나 + 형제자매  
⑦ 기타 ( )

5. 귀하의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 (괄호 안에 번호를 기입하세요)

|                             |        |
|-----------------------------|--------|
| 아버지( )                      | 어머니( ) |
| ① 초졸이하 ② 중졸이하 ③ 고졸이하 ④ 대졸이상 |        |

6. 귀하의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괄호 안에 번호를 기입하세요)

|  |        |
|--|--------|
| 아버지( )   | 어머니( ) |
| ① 전문직 ② 관리/행정직 ③ 기술직 ④ 사무직 ⑤ 노동직 ⑥ 서비스직<br>⑦ 농림/어업 ⑧ 판매직 ⑨ 전업주부 ⑩ 무직 ⑪ 기타(구체적으로: ) |        |

7. 귀하의 가정의 한달 소득은?

- ① 100만원 미만 ② 101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③ 201만 이상~300만원 미만  
④ 301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⑤ 401만원 이상



<부록 1> 가족체계 척도

◆ 가족체계 척도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에 가족생활에서 느끼고 있는 점들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가족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표 해주세요.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우리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 도움을 청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우리가족은 각자의 친구들을 알고 있고 그들을 인정해 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우리가족에서 자녀는 집안에서 지켜야 할 규율에 관해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우리가족은 무슨 일이든 가족끼리만 함께 일하기를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식구 중 누구라도 상황에 따라 가족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우리가족은 외부사람들 보다는 우리가족끼리가 더 친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우리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가족끼리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우리 집에서는 자녀가 받는 벌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야기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우리가족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면 자녀들도 함께 의논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우리가족은 가족행사가 있을 때 가족이 모두 참여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우리 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규칙이 바뀔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우리가족은 집안일을 할 때, 식구 모두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우리가족은 각자의 일을 결정할 때 다른 식구들과 상의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부록 2> 대학생활적응 척도

◆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

아래 문항들은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에 관한 것들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느낌이나 생각과 가장 잘 맞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V 표시 해주세요.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보통이다 | 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
|----|--|-----------|-------------|------|---------|--------|
| 1  | 최근 나는 긴장감을 느끼거나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  | 나는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마음껏 친구들을 사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  | 나는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  | 나는 요즘 기분이 매우 우울하고 울적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5  | 나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6  | 나는 시험기간 중에 잘 지내지 못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7  | 나는 최근에 피곤할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8  | 홀로 선다는 것, 내 자신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9  | 나는 교수님과 공적인 만남 이외에 사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0 | 나는 특히 이 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1 | 나는 학과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2 | 나는 요즘 내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3 | 나는 해야 되는 공부를 충분히 해 낼 만큼 똑똑하지 못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4 | 학사학위(전문학사)를 따는 것은 내게 중요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5 | 나는 요즘 식욕이 좋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6 | 나는 최근에 공부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7 | 나는 수강과목의 과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8 | 나는 최근 머리가 아플 때가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19 | 나는 요즘 공부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  |   |   |   |   |   |
|----|--|---|---|---|---|---|
| 20 | 나는 대학에서 할 수 있는 과외활동에 만족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1 | 나는 요즘 학교상담소나 그 외 심리상담기관을 찾아가 도움을 받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2 | 나는 요즘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3 | 나는 최근에 체중이 많이 늘었다(혹은 줄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4 | 나는 대학에서 사람들과 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5 | 나는 요즘 공부하려고 할 때 주의집중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6 | 나의 노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7 |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8 |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29 | 가끔, 내 생각이 너무 쉽게 뒤죽박죽이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0 | 나는 대학에서의 친목활동(동아리 등)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1 |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2 | 나는 과제물을 시작하는데 힘이 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3 | 나는 이번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4 | 나는 요즘 건강상태가 좋다고 느낀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5 |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에서의 내 학과 공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6 | 나는 지금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7 | 나는 무슨 문제든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친구나 아는 사람이 대학에 몇 명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8 | 나는 대학생활에서 닥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39 | 나는 대학에서의 인간관계에 만족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40 | 나는 대학생활에서 앞으로 닥칠 도전에 만족스럽게 대처해 나갈 자신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